

김 선 양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Yang

신의주 출장기

My Business Trip to Sinui-ju

출장사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용천지역 재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천소학교 건립에 건설업계의 참여를 권유받고 5월 4일 단체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로 결정하였다

지원금은 약5억원 범위내로 하고 그중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서 3억, 나머지 15개 단체에서 2억원을 분담기로 잠정합의 하였으며, 5월 17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측으로부터 북한출장시 건축사가 동행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필자가 다녀오게 되었다

두단체의 소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단연(KFCIS)으로도 부르며 1997년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17개건설단체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증진과 연대강화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국가신뢰구축을 목적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로, 회원사는 아래와 같이 17개 단체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는 회비분담을 12번째 규모이며, 지원금 분담을 1.924%이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민족화해와 공존'을 위해 1996년 창립된 이후 1998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 긴급구호물자 지원사업에 주력했으며 1999년부터는 남과 북, 해외 동포들과의 다양한 인적·물질·문화적 교류에 주력,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왔다. 북한의 농업생산량 제고와 보건의료체계 복구 등 중·장기적인 남북간 협력사업과 중국 조선족·러시아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 마련, 문화교류사업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족봉사단체로 김수환 추기경 등이 고문으로 되어있다.

울란바타르에서 단둥까지

올여름 건축사 교류행사차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380Km 떨어진 옛수도 카라코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틀후인 7월 15일에 신의주로 들어가기야한다는 연락을 받게되었다.

그동안 북측의 사정으로 세차례나 연기돼 왔던터지만 하필 몽골 출장중에 연락을 받게 되어 초행길인데다 일행과 별도로 혼자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이 엄습해왔다.



베이징(북경)을 거쳐 국내선으로 선양(선양)에 도착하여 한국에서 출발한 다섯분 그리고 단둥에서 온 조선족 한분과 합류하였다. 그분들은 용천의 유치원, 탁아소, 병원들을 지원하는 각지방과 단체에서 오신분들로 15일 아침 인천을 출발, 필자와 합류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터였다. 모두 초면이지만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준비된 폭스바겐 승용차로 나누어 타고 약 두시간을 달려 신의주와 가장 가까운 단둥시에 도착하였다. 이제 압록강만 건너면 북한이다.

잠시 휴식도 취할겸 면세점에 들어서 기념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주로 중국술, 약간의 화장품, 담배들이 진열되어있어 마치 시골 담배가게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신의주 소감

봉고차 한대로 옮겨 탄 우리 일행은 가능한 서서히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다. 문득 시계를 보니 4시 43분이다.

백두산 천지를 수원으로 하는 790km의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 이 강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철교는 제일한강교보다 8년 앞선 1908년에 착공된 길이 944m(한강교는

1005m)의 철교이다. 절단된 압록강 철교를 우로운 채 감개무량함에 젖을 새도 없이 잠시 후 인민군이 손짓하여 하차하니 마중 나온 북측 '민화협'측 대표와 우리 민족측의 사무총장 간의 친근한 인사가 오간다. 마치 가까운 친척이 버스정류장에 마중 나온 느낌이 든다.

이곳이 한국의 북문, 평북의 도청소재지 신의주다. 그들이 가져온 낡은 벤스 2대와 HYUNDAI 중 UND만 남은 겔로퍼 1대로 신의주 시내로 들어와 보니 도차자가 면사무소 같은 분위기의 '압록강 여관'이었다.

현관 위에는 적색 붓글씨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쓰여 있고, 현관 안에도 낮 익은 부자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벽화 그림이 있었다. 현관 밖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는 북측에서 잠깐만 하더니 현관 문을 닫았다.



숙소와 회의 장소인 압록강여관 앞에서

방 배정을 받고 여장을 풀 후 우리가 보낸 시멘트가 어제 도착했다고하여 확인 차 신의주역에 다녀오기로 하였다.

승용차로 잠깐 기면서 보이는 풍경은 나로 하여금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 말 내가 지라던 동네에 온 듯 착각 속에 빠졌다.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줄을 맞춰 행진가를 부르며 하교하는 모습, 녹슨 자전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한 중년들, 손수레들, 건널목을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 잿빛 도시인 이곳에서 튀는 색은 오히려 백색이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

는 부탁을 존중했다. 찍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찍을 대상도 없었다. 역무원이 보여주는데 시멘트는 중국산이었다. 그들은 질이 좀 나쁘니 차라리 북한산을 써주길 원했다.

좋은 발상 같으나 우리의 원조 의미가 자칫 퇴색해질 우려가 있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약 천 여평 정도의 대지를 울타리로 격리 시켜 외국인 전용으로 쓰는데다. 여관 내에 식당, 매점, 이발소, 사상책들만 파는 서점 등이 구비되고, 현관근처에는 운전기사들이 쫓고리고 앉아 있었다.



신의주역에 도착한 시멘트 선적화물차 앞에서

북측 민화협 측 주최로 환영 만찬회를 가졌다. 푸짐한 음식에 접대원 동무라고 하는 뺨지를 단 교양있고 상냥한 여성들이 시중을 들었다. 시중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찬을 마쳤다. 구내 맥주 파는 곳에서 우리끼리 2차를 즐겼다. 불 나간 껌껌한 곳에서 소리로만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여관방은 종종 단수되고, 샤워는 아예 안 되고, 정전도 잦았다.

이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나 엘리베이터에 평양 여성 둘이 갇혀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연신 소리를 질러 댄다. 조식 장소는 한 면이 철보산이 잘 그려져 있는 꽤 좋은 방의 원탁에 찬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정전이 되고 접대원들은 바로 양초 서랍을 열어 불을 밝혔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와 내가 농담을 하였다. 지금 나의 30번째 생일 잔치를 하기 때문에 촛불을 필자가 끄겠다고 하며 입바람으로 세 개를 다 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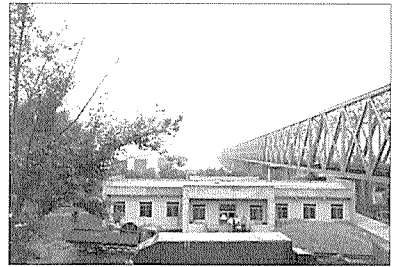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 중 한 접대원이 '그건 우리식이 아니잖아요' 한다. 어떤 것이

우리식이지? 그들 말에 "고깃국 먹고..." 우리 어렸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는 체 좀 멋쩍게 웃고 말았다.

회의

오전, 오후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협상은 항상 우리 측이 불리하게 끝나는 듯한 감은 우리 전 국민이 느껴온 바다.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승용차가 별로 잘 못한 일이 없어도 좀 손해를 봐야 협상이 끝나듯...

우리는 한 동을 정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과 비품까지 풀셋으로 협조한 후 머릿들에 새기고 인수인계 행사를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북측은 그 지원 범위로 여기저기 요소소에 자재를 공급하여 보수하고, 중고품으로라도 좀더 많은 비품을 받고 싶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는 점, 요구물량 내용이 자주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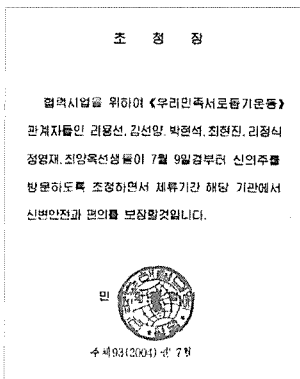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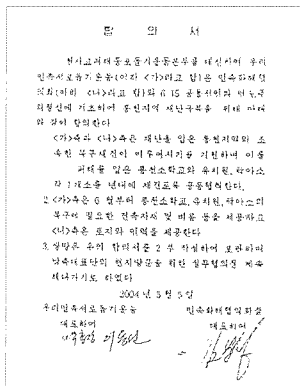


북측출입국 관리소청에서 본 인도교(좌측단교는 북측측은 교각만 보임)

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24시간 만에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 소나기 퍼붓는 관리소마당에서 짐검사와 함께 맞겨놓은 휴대폰, 여권 등을 찾느라 자못 분주한터에 압록강 철교를 찍은 일행 중 한명이 필름을 압수당했다. 고맙게도 카메라는 후레시가 작동하지 않아 불상사는 면했다.

다시 단동으로

공교롭게도 방금 출국검사를 받은 북측 출입국관리소가 뻔히 보이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동부이촌동에서 동작동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북측은 압록강다리 이마에 '조중친선다리' 라고 한글로 써놓았는데, 중국은 절단된 압록강철교 이마에 '압록강단교' 라고



압록강 철교 국경에서 민화협팀과 함께



단동쪽에서 본 압록강 단교(좌측은 조중친선다리)

써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압록 강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걸어보았다. 활기찬 단동에서 보이는 신의주는 먹구름 속에 연기 없는 오래된 굴뚝 몇 개와 돌아가지 않는 커다란 회전놀이 시설이 보이는데, 중국은 압록강에 유람선, 모터보트를 띄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듯하였다. 강을 따라 길게 나있는 강변공원은 디자인이나 재료들이 돌과 천막 등을 사용하여 몇몇 조각 작품들과 어울려 북한과 강한 대조를 보였다. 주석께서 "단동은 수직으로 올라가도 우리 신의주는 수평으로 놓아두자"고 했다는 어제 만난 접대원의 말이 생각난다.

실무방문단 출장보고요약

- 출장기간 : 2004. 7. 15 ~ 7. 17
- 인 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선영(건대련,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박현석(한민족복지재단 사무처장)
정영재(광주·전남 통천돕기 집행위원장)
최양욱(익산 통천동포돕기 실무책임자)
이정식(문화방송 차장) 등 총 6명
- 일 정
- 7. 15 (목)
① 압록강 여관 도착
② 우리가 보낸 시멘트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주역 방문
③ 북측 민화협 주최 만찬 참석(북측=3명참석)
- 7. 16 (금)
① 10시 1차 회의 개최(압록강여관 면담실)
② 12시 남측 주최 오찬(압록강여관 식당, 북측 3명 참석)
③ 14시 2차 회의 개최(압록강여관 면담실)
• 1차 회의 (10시30분)
남과 북 각 6인씩

- 북측 참가자
장송근(룡천피해복구대책위 부위원장)
최성일(룡천군 교육부장)
김창식(룡천군 도시설계 책임자)
백문길(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실장)
조철수(민화협 참사)
최철남(민화협 참사)
 - 남측
남측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이 사무총장)
1) 기 민화협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과 취지 설명
2) 이 사업은 남측의 여러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각 건물의 설계에서 시공, 비품 자원과 준공 축하방문까 지가 합의서의 취지임을 재인식 시킴.
 - 북측
1. 인사와 룡천 상항보고(장 부위원장)반경 3.2Km내가 모두 파괴 됨. 사망 총 161명 (추가발견자 7명 포함)
복구현황 : 살림집(주택)과 룡천소학교는 80% 진전
- | | | | |
|-----|--------------|---------|----------|
| 소학교 | 지하 1층, 지상 3층 | 3,500㎡ | 골조공사 완료 |
| 유치원 | 지상 2층 | 250명 수용 | 40% 공사완료 |
| 탁아소 | 지상 2층 | | 40% 공사완료 |
- 준공 : 10월 예정이며 단, 소학교는 2학기 개학(9월 1일)을 위해 7월말까지 준공 예정
 - 2. 룡천 현장방문
군인들이 평북도에서만 1만명 이상 투입되어 작업하고 있음으로 당분간은 보여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룡천에 신도시를 준공한후 '널리 보여라'고 한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기에 준공 이후 방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요구사항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마감재와 비품에 관심을 가져주기 원하며, 요구 자재표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 합의한 소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병원 등 각 1개소

용이 아니라 룡천지역의 전문학교, 4개중학, 4개소학교, 4~5개유치원, 4~5개 탁아소, 병원 등의 것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음.

- 남측
오후 2차 회의시까지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자재 및 비품 요구가 아닌 마감 자재와 필요 비품을 각 건물별, 공사별로 상세히 구분하고 도면과 함께 제시해 주도록 제안하고 회의를 마침.

- 2차 회의 (14시40분 속개)
김창식 기사장 불참 (룡천현장 업무차)

- 북측
1차 합의 시점은 5월초이었으나 현재 7월에는 공사 마감 단계임으로 현단계부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 기 원하며 요구 명세서 제시 함 (장송근 부위원장)
요구명세서 내용:오전보다 더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제시

컴퓨터 500대	1차 회의사는 210대 요청
TV	
강재 200톤	
밀가루 2,000톤	남측 : 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지적 함
디젤류 200톤	
설탕	
* 등 총 약 7~8종 요청	

- 남측
오전 1차 회의시 상호 합의대로 각 시설별로 자재와 비품을 구별하여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북측의 '기 합의시설의 공사와 무관한 내용과 컴퓨터 과다요구 등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

결론 민화협의 백문길 실장이 신의주에 남아 남측의 요구대로 각 시설별 건축자재와 비품명세서, 전달방법, 기본설계 등을 작성하여 다음 주 중에 FAX로 남측에 전달한 후 평양에 귀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면담을 마치고 헤어짐

○ 참고 ① : 2004. 6. 15, 7. 4, 7. 9, 7. 15
 북측의 사정으로 계속 지연 되다가 4차
 례 만에 성사되어 방북한 것이나, 김
 주석 10주기 조문 파동으로 북측 방문
 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룡천돛기팀' 만
 우선 방북이 허용된 것이라고 함.

○ 참고 ② : 또다시 400여명의 탈북자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냉각 상
 태인 관계로 2004. 7. 28 현재 7. 24
 까지 FAX 전달기로 한 북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민화협 관계자
 는 FAX 자료를 준비한 후 평양에 귀
 환했다고 확인되었음.

○ 참고 ③ : '우리민족돕기운동' 사무실에
 2차례방문하여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8월7일 작성한 소요자재설비비품 명세
 서를 분석하고 지급범위, 지급순서, 구
 입방법 등을 정하여 9월 2일에 최종
 정리하였음.

그 후 상황과 기대

최근 그들이 요구한 물품을 잠시 소개하면



북측에서 보내온 룡천소학교 투시도

건설자재요구서

자재	4층/5,100m ² (1,543평)
시멘트	187톤
피치	5톤
강재	293개
수지창 150 X 150	170개
수지창 120 X 150	2개
수지창 90 X 50	39개
변압기 30K	1대
무리등	10개
형광등	100개
레자	2000m ²
크림기계	1대
천정텍스판	1000m ²
발동발전기 200K	1대
100K	1대
50K	1대
타일	1000m ²
공유차 1대 또는 오토바이 1대	○
자동카메라	1개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품요구명세

① 학습하는 교실에 필요한 비품

교실거울	200개
옷걸이	200조
전등(컴팩트)	200개
전기중	10개
록화기	10대
철판	40개
책상, 의자	2000조
교탁	50개
책가방	2000개
학습장	5000권
연필	1만자루
필갑	5천개
벽시계	100개
보온병	100개
램온풍기	10개
전자풍금	10개
레자	2200m ²

② 기타 컴퓨터 및 록화조종실, 음악실,
 체육실, 위생실, 강당, 교원실, 자연실, 리
 발실, 도서실, 경비실에 필요한 비품일체.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요구를 하여 우

리측에서도 조정하여 조속히 매듭을 짓기로
 하였으나, 한편 우리 건단연측은 설계나 시
 공과정의 합이서 내용대로 정확히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예정금액의
 60%이상을 지원기로 재조정 할 것으로 추
 측된다.

요구명세서에서 물뺑기, 무리등, 공유유
 차, 자동카메라, 전기중, 녹화기, 필갑, 전자
 풍금, 축구뺑, 탁구판, 탁구알, 체육마다라
 스, 량수책상 등 좀 생소해진 용어들이 눈에
 띈다.

지금 그들은 남측이 잘살고 물건의 질도
 좋다는 것을 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노력
 의 결실일진데,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명
 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그리고 가슴에 뺏지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외화별이용 단동 북측
 운영 식당에서는 매일 밤 '동포여러분 반갑
 습니다' 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
 려 퍼진다.

6.25때 UN의 원조를 받아 펴낸 '이 책은
 운크라에서 지원한 교과서...' 생각이 난다.
 기왕 지원받는 입장이라면 계획에서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비품까지 일체로 지원받
 고 머릿돌에 고마운 뜻까지 새겨놓을 수 있
 어야 완벽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